

경블련 환경모임

부산 문화재모임

완도 사랑모임

“문화재·환경 불자가 지킨다”

3월경 범불교 환경단체 발족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자와 시민들이 나섰다. 이런 흐름을 타고 3월경에는 출·재가를 망라한 범불교 환경단체도 창립된다.

최근 환경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선 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위원회, '부산의 문화재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송광사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 등.

1일 미아5동 자비의 집에서 발족한 경블련 환경위원회(위원장 정혜옥)는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벌인다.<관련인터뷰 4면>

경블련이 지난 12월 1달간 개최한 '어머니 환경교실'을 수료한 주부불자 37명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 환경모임은 사찰에 꽃·나무 심기, 양초

재생,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생활 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해나간다. 매달 첫째 목요일 환경강좌를 열고 사찰 신도들을 중심으로 환경교육도 실시. 회원을 점차 늘여나가며 보살 중심의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02)3147-2600

부산의 스님과 고고학·역사학·도시공학·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은 지난 1월11일 '부산의 문화재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공동위원장·해린 해인종종정 스님 등 6명)을 결성했다.

청년 스님(산을사랑하는시민연합 공동대표)이 총괄사무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부산시의 도시개발정책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사단법인을 추진, 부산시 전체 문화유산 및 환경훼손 실태조사와 시민의식

교육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051)466-2944.

완도 신홍사(주지 법일) 신도들로 구성된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공동회장 김동관·김주은)은 지난 1월 7일 대신리 바닷가 갯벌정소를 시작으로 지역 환경과수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동관회장은 "청해진 바닷가에 나아가 청수도 하며, 탐욕으로 물든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크나큰 원력을 세우는 불자가 되자는 것이 모임의 창립 취지"라고 말했다. (061)554-2634

이같은 자생적인 환경모임들은 전문 환경단체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통해 실질적인 생태계 복원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편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경블련 어머니환경위원회는 1일 발족식을 갖고 보살위주의 작은 환경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범불교 환경운동단체의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리산살리기탐방직화 범불교연대가 주축이 되어 3월경 발족할 예정인 이 불교환경단체는 환경운동이념에 가장 적합한 불교적 이념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리산살리기 운동으로 가능성을 보인 불교환경운동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달려라 '봉축열차'

서울지하철 5호선 4~5월 운행

중단협등 적극추진

부처님오신날 봉축열차 달릴 수 있을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중단협)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하철 5호선 1개 열차(8량)를 (가칭)봉축열차로 꾸며 운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봉축열차는 전동차 8량 외관을 전통 문화와

현대적 불교이미지가 어우러지게 꾸밀 계획이다. 또한 전동차 내부 4량에는 팔만대장경 전시, 미아찾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교를 체험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봉축열차 단장에는 연꽃 예술가 정명스님을 비롯해 불자 설치미술가 홍현숙, 안성규, 김인경, 양주혜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20일 열리는 총회에서 봉축열차를 운행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청각장애인 운전비디오 제작

영화복지학원, 무료대여

청각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기란 정상인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이상 어려운 일. 운전면허학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다니다 허덕여도 맞닿고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광림사 영화복지학원(원장 해성)이 청각장애인들의 운전기능교육을 돕기 위한 교육용 비디오를 내놓았다.

이 비디오는 영화복지학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습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김승호

씨가 코스를 따라가며 수화로 설명하고, 이와 동시에 자막과 음성설명도 곁들여 놓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300부가 제작된 비디오는 전국의 농아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100여곳에 이미 배포됐으며, 비디오를 신청한 청각장애인에게는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무료로 대여한다.

한편 영화복지학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로 선정돼 올해 안으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론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다. (02)2202-5831

한명우 기자



진각종은 2일 인도대사관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인도 지진참사

중단 등 구호 잇달아

교계 종단과 단체가 지난달 발생한 인도 지진참사 구호에 나섰다.

조계종은 2일 종무회의를 통해 인도대사관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보림법회(7일)에서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하도록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도 같은날 인도대사관을 방문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총지종도 5일 성금을 모아 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천태종 관문사는 4일부터 9일까지 성금을 모아 인도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JTS는 사고직후 인도 수자타야카데미 현지에서 긴급구조단을 파견했다.

한명우 기자

가슴 찡한 이야기

'아름다운 녀 정수사서 쉬다'

일본에도 올린 이수현 불자



이수현 불자

조계사 올내 우정국로 쪽 일주문 세운다

지난해 말부터 일주문 불사를 벌여온 조계사는 최근 일주문을 우정국로쪽에 건립키로 결정하고 올해말까지 우정국로쪽의 부지를 사들여 계획을 진행키로 했다.

1월 26일 일본 도쿄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이수현(26세)의 유해가 1월 30일 오후 부산의 정수사(주지 원광)에 안치됐다.

이씨의 유해는 공항에서 노제를 지내고 곧바로 연산동의 집을 거쳐 정수사 설법전에 안치됨으로써 신심 깊은 불자인 부모님과 함께 내성고등학교 재학당시부터 다니던 정수사로 아름다운 녀이 되어 돌아왔다.

이날 진행된 반찬제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설문근 부산교육감, 강상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일본대리사 등 각계 인사들이 헌화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정수사는 2월 1일 49재 초재를 입재, 49일 동안 고인의 명복을 비는 49재 의식을 봉행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죽기전 얼굴 한번 봤으면...'

북에 맘말 생존 102세 최우성 할머니



102세 최우성 할머니

"맘말이 살아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1월 3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보각사. 북한 적십자회로부터 넘겨받은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결과 북측 회보서'에 맘말 박순숙(61)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최우성 할머니(102)는 눈을 감은 채 말없이 합장했다.

최할머니가 55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남편 박학재씨, 맘말 순숙씨와 헤어진 것은 51년 1·4후퇴때. 전쟁이 끝나자 최할머니는 샅바느질부터 시작해 동대문시장에서 포복조를 운영해 오다 95년 그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집을 지어 회사했다. 이곳 보각사에서 거거하며 남편과 딸의 안부를 기원해 온 지도 벌써 6년째.

"죽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합장한 할머니는 붉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3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이 날 26일 딸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한명우 기자

삼전복지관 '최우수'

서울시 84개시설 평가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우이)은 서울시와 한국복지진흥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복지관 평가에서 '2000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됐다.

8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한달간 관리운영, 프로그램, 지역

사회관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이번 평가에서 삼전복지관은 주민복지 수준 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친절도, 효과성, 적합성, 공평성, 접근성 등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삼전복지관 노숙자시설인 '길상희망의 집'도 2000년 서울시 선정 우수희망의 집으로 선정됐다.

한명우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할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들에게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수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 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5300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